

박완서는 왜 화가를 '환쟁이'라 불렀을까

에스프레소



오진영
작가·번역가

한국 소설 문학의 거장 박완서 선생의 데뷔작 (나목)은 6·25 전쟁 직후 서 울이 배경이다. 주인공 '나'는 손수건에 초상화를 그려 미군들에게 파는 백화점 코너 판매원이다. '나'는 같이 일하는 화가들을 '환쟁이'라 부른다. 어느 날 그들 중 한 명인 옥희도(화가 박수근이 모델)가 해방 전 미전에서 특선을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화가란 말이군요?" 대화에서 상 받은 정도라면 예술가 대접을 하겠지만 초상화 그려 파는 화가들은 환쟁이라는 멸칭으로 불려도 된다는 의식이 엮여져 오늘날의 감수성으로는 불편해 지는 대목이다.

나목이 발표됐던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환쟁이' 처럼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말에 별로 거부감이 없었다. 그래서 한시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작가 박완서조차도 소설 안에 이런 단어를 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지금 2020년대 소설가라면 '환쟁이'라는 단어를 절대 작품 안에 쓰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환쟁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것이다. 1970년대에는 인권을 하두로

고민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차도 특정 직업이나 약자에 대한 비하 호칭을 일상에서 무심코 썼다. 한편 오늘날은 인권운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 세상이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흐름이 바로 PC(Political Correctness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는 운동)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흔하디 흔한 직원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생활 속 PC 현상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PC의 수혜

작가 데뷔작 '나목'의 주인공들 차별용어인 개정판 내야할까 'PC' 진절머리 내는 사람 많아져 좀 더 겸손하고 친절해져야

자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강자인 사람은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한 명 걸러가면 걸려보라고 모두 버리며 사는 것 같은 나라, 다들 폭발하기 직전인 듯 성이 나 있는 이 한국 사회. 여기서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예의'인 PC마저 없었으면 얼마나 더 살얼음판 같이 피곤했는지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많은 이가 PC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한다. 'PC종들은 선비질 그만하라'는 비아냥이 난무한다. 대체 왜 그런 걸까. 강준만 교수는 저서 <정

치적 울바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무대로 누가 더 도덕적이고 정의로운지 겨루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고. 이곳에서 정치적 울바름은 종종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PC이건만 자칫 지나치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은 '지적질'이 된다는 것이다.

박완서의 (나목) 속 '환쟁이'는 잘 못되었으니 '화가'로 바뀌게 개정판을 내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도덕적 울바름을 과시하는 오만한 지적질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한편 친절하고 영리하게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PC주의자라면 전쟁과 가족의 사망으로 모든 것을 잃고 소녀 가장이 된 주인공이 자신이 속한 일터와 동료들을 통틀어 비하하는 방식으로 좌절과 상처를 표출하는 맥락을 읽어낼 것이다.

지금 우리가 1970년대 소설 속 '환쟁이'를 낯설게 보듯이, 수십년 후에 2020년대의 한국 사회를 돌이켜 볼 때에는 동성애 인권운동을 못마땅해하고 다문화주의를 쓰악해하는 일부의 시선을 구시대 유폐처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원하던 원치 않던 그렇게 될 것이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19] 영화는 잊지 않는 꿈이란다

Movies are dreams that you never forget

"안에 캄캄하잖아. 안 들어갈래. (It'll be dark in there, you said. I don't wanna go in.)" 극장에 처음 온 새미가 매표소 앞에서 언다. 아빠와 승강이를 벌인다. 아빠는 무섭다는 아이를 달래려고 초당 24장이 지나가는 활동사진이라거나, 잔상 효과라거나 하는 과학적인 설명을 늘어놓는다. 그래도 풀리지 않던 아이의 표정은 엄마의 말에 어느새 환하게 바뀐다. "영화는 잊지 않는 꿈이란다. 보고 나면 너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을걸. (Movies are dreams, doll, that you never forget. When it's over, you're gonna have the biggest, sloppiest smile on your face.) 가장 스피드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

를 다룬 '파벨만스(The Fabelmans-2023-사진)'의 한 장면이다. 영화를 겁내던 시절은 어디 가고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새미(가브리엘 러벨)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고 있다. 그런데 카메라는 고사하고 편집기 가격만 해도 100달러나 된다. 아빠의 반응은 역시나 현실적이다. "취미에 100달러를? 실제로 쓸모 있는 걸 해야지. (A hundred dollars for a hobby? Something someone can actually use.)" 새미는 영화 제작을 철부지 놀이처럼 생각하는 아빠가 답답하기만 하다. "취미 아니야, 아빠. (It's not a hobby, Dad.)" 오랜만에 집에 들른 큰외할아버지



보리스는 자기처럼 예술에 빠져 있는 손주를 보고 경고 같은 격려를 건넨다. "우리 약쟁이이고 예술은 우리의 약이지. (We're junkies, and art is our drug.) 예술이 하늘의 왕관과 땅의 월계관을 줄 테지만 네 가슴을 찢어놓고 널 외롭게 할 게다." 새미는 기꺼이 행복하고도 외로운 꿈을 걸기로 한다.

영화 번역가

社 說

동맹 외교 마친 尹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내 정치, 경제 난제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협정의 그룹 창설,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선 미 의원들이 26차례 기립하고, 56번 박수가 나왔다. 우리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과 영어 연설은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었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한일 관계 정상화도 주도했다. 일제 시대 징용 피해자 문제를 한국 정부 주도로 해결하는 '제3차 변제' 안을 제시하고 먼저 일본을 방문했다.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겪은 대승적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답답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일 연설 외교를 통해 우리 안보의 주춧돌인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필수적인 한·미·일 3각 관계의 토대도 정상화시켰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와 폭력적 대외 관계를 추구하는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원칙도 지켰다.

그러나 귀국하는 윤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년간 외교·안보 사안과는 달리 내정(內政)에서는 진전이 없다. 대장동 사건 수사의 여파로 민주당이

사사건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온 탓이 크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중에도 간호법, 방송법, 특검 두 건을 일방 강행 처리 중이다.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주 52시간제 개편, 여당 내부 정치, 일본과의 외교 등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보다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이와중에 경제에도 무역 적자와 경상 적자, 고환율, 고물가, 한계를 넘은 가계 부채, 역전세 폭탄 우려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부 진흥 개편 등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계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은 윤 대통령이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서 국민 정서를 살피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마침 민주당에서 그동안 맹목적으로 폭주하던 '86세대' 원내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이를 기회로 대통령이 경색 정국을 주도적으로 푸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생선 미역은 먹으면서 물은 '불안', 과학이 괴담 못 이기는 현실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공장은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하려고 공사비 2000억원을 들여 2014년 말 완공한 시설이다. 그런데 난태양이 시설에서 11km 떨어진 고리 원전이 있으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괴담이 돌면서 발목이 잡혔다. 이 괴담 때문에 9년째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2000억원 시설이 고철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 단체 등은 "원전이 가까우니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주민 불안을 부추겼다. 그래서 시설로 들어가는 바닷물과 생산한 담수 수질을 수백 번 과학적으로 검사해야 했다. 검사 결과 단 한 번도 기준치(리터당 1~1.4벵크렐)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도 생선 배설물에서 1~2벵크렐, 연안 해수에서 0.5~1벵크렐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국내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미국에도 열 번이나 검사를 의뢰해 식수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런데도 환경 단체 등은 막연한 불안을 계속 조장했다. 결국 이런 괴담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시범 가동도 멈춰야 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긴 것이다.

해수담수화 시설로 들어가는 바닷물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데 어떻게 염산투입 방식으로 처리한 담수에서 삼중수소 등이 나올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 바닷물에서 자란 생선 멸치회와 미역은 마음껏 먹으면서 그 바닷물로 만든 식수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선 괴담이 막연한 불안을 부추겨 과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우병,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우리의 경우 과학의 역사 자체가 일천하고 사회 전체에 합리적인 사고의 전통과 기반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믿어야 한다. 그저 찜찜하다는 기분만으로 주민 모두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2000억원 시설을 고철로 만드는 것은 21세기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괴담을 극복하는 사례를 하나씩이라도 쌓아가야 괴담으로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文 정권이 막은 대북 전단, 대법은 "北 주민에 실상 알리는 역할" 인정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대북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 당시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이 그해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해 말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영국·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처럼 발을 만든 배경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내용도 위헌적이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년 넘게 몽게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현재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현재는 신속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김정은 폭압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한다. 탈북민 단체들도 앞으로는 시위를 하듯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순수한 뜻이 의심받아서 안 된다.

윤 대통령 국민 방미 특집
류근일 칼럼 3

핵우산 동맹에서 핵공유 동맹으로 도약... 사이버 방위·우주개발 협약도 백년지계

뉴데일리
newdaily.co.kr

■ '또 한 판 붙어보자'...한미, 시진핑-푸틴-김정은에 선언 워싱턴 선언, 대륙전제주의에 '체제 가치전쟁' 선포 스탈린-모택동과의 1차 전쟁에 이은 2차 전쟁 서곡

■ '한미동맹 2.0시대' 개막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년 4월 27일 새벽(한국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과 '초강대국' 미국의 70년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이승만 시대 '한미동맹 1.0'에서 윤석열 시대 '한미동맹 2.0'으로 상승한 것이다. 20세기 재래식 한미동맹에서 21세기 신기술-핵확장지역-우주-사이버 차원의 한미동맹으로 도약한 것이다. 이 첨단 한미동맹은 중국-러시아-북한 대륙 전체주의의 안보적-경제적 도전에 대한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을 갖추는 계기로 기대되었다. 이 기대에 부응해 윤석열-바이든 공동 기자회견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半)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 한미 간에 핵 협의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하고

■ 한반도 지역에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더 빈번 전개하고

■ 미국의 핵 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기회

△공동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독자 핵 개발,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다짐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한국의 독자 핵 개발은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윤석열-바이든 두 대통령은 각자의 국가 이익을 대표해 답변했다. 한국형 핵 확장 억제와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방법"이라고 한국에 유의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다" "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 '밀가루에서' 우주로

경제 분야와 관련해 한국 기자가 "미국의 반도체 법 때문에 한국 기업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환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윈-윈 할 수 있다"라고 단답했다. 동맹국 간에도, '경제는 시혜(施惠) 아닌 시장 법칙'이라는 뜻이다. 기술협력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협조를 △반도체 △배터리 △전자 △바이오 △사이버 △우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밀가루 배급을 받고 주던 한미동맹이 70년 만에 고도의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것으로, 한미-일과 인도 태평양 자유 국가들은 '시진핑-푸틴-김정은'에게 분명히 선언한 셈이다. 누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지, 또 한 번 치열하게 붙어보자고.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4월 27일 게재 되었습니다.